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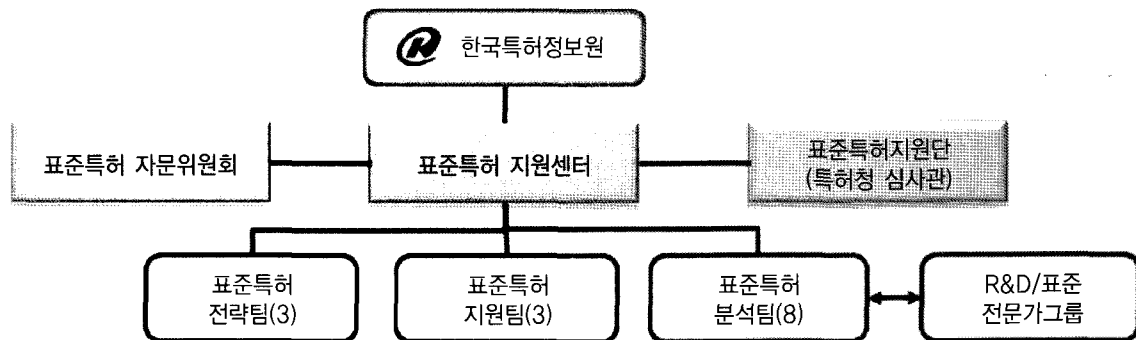
표준특허를 장악한 자가 세계시장을 지배한다

「표준특허지원센터」 설치, 운영 들어가

특허청은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특허정보원 내에 「표준특허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11월 19일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하여 기술선점, 시장지배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들어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밝혔다.

〈「표준특허지원센터」 조직도〉



디자인 경영의 시작은 '디자인 맵' 으로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정보서비스 개시

특허청은 기업 및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맵 사이트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디자인맵 사이트(www.designmap.or.kr)는 노트북, 전자거 등 54개 물품에 대한 최신 트렌드 및 국내·외 등록 디자인 검색 기능을 갖추었음은 물론 국내 및 해외 디자인출원 가이드 등을 제공하여, 디자이너·디자인경영자에게 필요한 지식재산권 정보와 최신 디자인정보를 새롭게 갖추었다.

특히 '09년 사업에서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특화된 디자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맞춤형 서비스'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디자인 관련 정보를 지식재산권 동향을 통해 파악하는 'IP+Design Report'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제 기업 디자인개발의 비용 및 시간 절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2010년 예산에 3,500억 편성

강한 특허 의 창출·보호·활용에 내년 예산 1,858억 원 편성

특허청은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도 예산을 3,498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2009년도의 3,747억 원보다 6.6% 감액된 것이며, 이 중 심사·심판의 품질 제고, '강한 특허' 의 창출, 보호, 활용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은 1,858억 원으로 2009년도의 1,793억 원(모태펀드 제외)보다 3.6% 증액되었다.

첫째, 선행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조사·분석과 출원 분류, 심사관 교육 등 심사·심판 지원 분야에 301억 원을 편성하여 심사·심판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법조약(PLT), 상표법조약(TLT) 등의 국제조약 가입에 필요한 3세대 특허넷 시스템 개발 사업에 5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심사·심판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에 총 433억 원을 편성하였다.

둘째, 지재권과 R&D를 연계함으로써 R&D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첨단부품소재 분야 지재권 R&D 전략지원, 표준특허 창출지원 등에 252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핵심·원천·표준특허에 관한 포트폴리오와 전략을 갖추도록 지재권 획득전략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하여 지재권 기반의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과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 등 지식재산 인력양성 분야에 170억 원을 편성하였다.

셋째,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으로 지식재산 5강(IP5)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원활한 양자·다자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분야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지재권 정책과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성숙한 세계국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최빈국을 대상으로 지재권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침해와 국제 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추가설치하고 지재권 소송보험을 도입하는 등 관련 사업에 57억 원을 편성하였다. 국내에서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촉진 분야에 116억 원을 편성하여, 특허기술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한편 녹색 발명(Green Patent)의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권리화, 시작품 제작, 특허기술평가,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번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우리 특허청이 세계 지식재산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에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친(親)지식재산사회가 구현되는 전기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국가와 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과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특허청 · KINPA, 올해의 'Best 특허엔지니어賞' 수상자 발표

지식재산경영 확산 등에 기여한 기업 내 IP 실무자 5명 선발

'KINPA 컨퍼런스' 서 수여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는 올해 'Best 특허엔지니어賞'에 LG전자 김용천 부장, ADP엔지니어링 박우종 대리, 탑엔지니어링 방규용 차장, 한라공조 안용귀 수석연구원, 삼성전자 이정우 수석 등 5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賞'은 특허청과 KINPA가 기업 내 지식재산 경영 확산과 지식재산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평소 지식재산 제도 발전과 기업 내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공로가 큰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특히, 올해 수상자들은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특허경쟁에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식재산권 발굴·획득과 기업 내 지식재산 경영 마인드 및 지식재산 노하우 공유·확산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평가해 선정했다.

한편,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은 지난 11월 11일 JW메리어트에서 열리는 'KINPA 컨퍼런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 등 국내기업의 주요 수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 및 최신 특허동향이 소개되었고, 컨퍼런스의 세부 주제는 ITC 분쟁사례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美 ITC Chameski 판사), 중국의 IP 분쟁과 통상(대의경제정책연구원 조미진 박사), 유럽의 IP분쟁과 통상(리엔목특허법인 이호근 변리사), Patent Troll의 일본 내 시각과 대응(일본동경이과대 히라츠카 교수), 미국 특허법 개정과 주요 판례(가산특허 정승복 미국변호사), 중국 특허법 개정과 정책방향(중국 특허청 Bai Jianfeng 차장) 등이 발표되었다.

'2009 Best 특허 엔지니어' 수상자 현황

소속	성명 및 직위	공적 개요
LG전자 (특허센터)	김용천 부장	광디스크, 데이터압축, 네트워크 분야 표준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해 Royalty 수익을 실현, 사내 업무혁신 Task 활동, Process 개선으로 관리 System을 구축하였고 사내 실무연구회 및 KINPA 활동으로 IP 실무 노하우 확산에 기여함
ADP엔지니어링 (연구기획팀)	박우종 대리	자사의 국내외 출원 및 등록특허 1,250여 건을 진행하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중 외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장비산업에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대면적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드라이 에처 장비 등의 국내 관련 장비 시장의 점유율을 향상시켰으며, 대만, 중국 등에도 장비를 수출하는데 기여함.
탑엔지니어링 (특허팀)	방규용 팀장	중소기업인 자사에 특허전담팀을 신설하고 특허관리시스템 개발, 특허소송 및 매입, 기업비밀 관리 및 M&A 실사 등 효과적인 IP 경영을 실현함으로써 회사 경영성과 극대화에 일조하였으며 KINPA 활동, IP 지 원사업 평가위원 활동, 중소기업의 IP 강의 및 IP 실무노하우 공유를 위해 노력함
한라공조 (기술연구소)	안용귀 수석연구원	사내 특허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고유 특허발굴 활동을 통해 자사의 독자기술 개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고 R&D와 연계한 특허관리 프로세서 구축, 특허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 정보화를 통한 IP 기술경영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지재권 정부정책 지문위원으로 활동하여 IP제도 발전에 기여함
삼성전자 (지적재산팀)	이정우 수석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실행시, 지원과 자문을 통하여 IP 제도개선과 확산에 기여하였고, 삼성전자 고유의 특허분류체계 확립 및 IP 교육, 특허출원 및 라이선싱을 수행하여 IP 공유 및 확산과 기업의 IP 경영에 기여하였음.

특허청의 디자인정책 획기적인 변화 기대 !

디자인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심사정책과' 발족

특허청의 디자인산업 발전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정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 11월 2일부터 디자인심사정책과를 신설하여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경영은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으로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디자인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디자인관련 인적역량 강화 및 물적 기반 확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디자인관련 정책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이번에 출범한 디자인심사정책과는 기업 및 디자이너의 다양한 요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디자인전문가(디자인 박사 2명, 디자인 석사 2명)를 특채하여 업무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 26일에도 디자인 박사 3명을 더 채용하여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디자인 인력을 운용하여 디자이너에 의한, 디자이너를 위한 정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허청은 이렇게 디자이너에서 공무원으로 변신한 이들이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러시아 특허심사 고속도로 개통

한-러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앞으로 러시아에서도 우리 출원인들이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통해 쉽고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과 러시아 특허청은 지난 11월 2일부터 양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양국에 특허가 공통으로 출원된 경우, 먼저 특허가 출원된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상대국은 간편한 절차로 해당 출원을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현재, 일본(2007. 4. ~), 미국(2008. 1. ~), 덴마크(2009. 3. ~), 영국(2009. 10. ~) 및 캐나다(2009.10. ~)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 중이며,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하는 6번째 국가가 된다.

특히, 러시아와는 지난 6월 한-러 특허청장 회담에서 지재산 보호 강화 등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조치를 담은 한-러 특허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양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은 러시아에서 우리 기업이 더욱 간편하고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러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는 2009년 11월 2일부터 1년간 시범 실시되며, 특허심사하이웨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A, B국가에 공통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A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이를 통해 출원인은 일반심사에 비해 신속한 심사로 조기에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청 측면에서는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함으로써,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고 심사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 개념 예시〉

